당직 인선·서구청장 보선·4대강 예산 어떻게?

시험대 오른 손학규 리더십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이 시험대에 섰다.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당내 주주들과의 이해관계를 잘 정리해야 하는데다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인 광주 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여기에 예산국회에서의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거대 여당과의 한 판 대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대표가 이 같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장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리더십에 상처가 생기는 것은 물론 대권 가도에도 상당한 장애가 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직 인선**=일단 손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대변인 등 주요 고위 당직 인선에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연착륙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책연구원장, 사무부총장 등의 당직 인선을 둘러싸고 당내 주주들과의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핵심 당직을 손 대표 뜻대로 했으니 나머지 당직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 대표도 대권 도전 등의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당 내부의 장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일부 최고위원들과의 감정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손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상당 부분 훼손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당직 인선의 향배는 오는 27일 최고위원 심야 워크숍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가닥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구청장 보궐선거**=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하에서 공천이 이뤄졌으나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책임은 손 대표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광역시의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김선옥 후보가 패배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당내외에서 손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손 대표는 선거 막판 집중 지원에 나서며 민주당 김선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판세는 아직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손 대표 측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선거이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선거 구도와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에서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4대강 등 예산 국회**=이번 예산 국회는 손 대표의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2년 동안의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투쟁에 나섰으나 거대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만을 불렀다.

오히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삭감에 실패한 것은 물론 민생 및 복지 등 타 분야 예산마저 제대로 못 챙겼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손 대표가 취임 이후,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 민생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 정동영 최고위원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친서민·복지예산… 4대강 원안 추진"

野 "민생으로 돌려야… 국민투표 검토"

예산국회 첫날 기싸움 팽팽

이명박 대통령의 25일 국회 시정연설(총리 대독)로 본격 시작된 '예산국회'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 친서민·복지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홍수 예방이나 식수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 예산을 '4대강 예산'으로 규정, 이를 대거 삭감해 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것(예산)으로 평가된다"며 "여야가 법정기한 내 예산처리를 합의한 만큼 지난 8년 연속 파행기록을 깨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은 작년 여야 합의로 예산이 편성돼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작년에는 예산에 합의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4대강 사업만큼은 어떤 다른 사항과 결부지어 협상·타협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민간인 불법사찰, 반서민 정책을 파헤쳤다"며 "예산국회에서 서민·복지예산을 늘리고 불필요한 4대강 공사 예산은 막고 국가부채 급등을 파헤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이 4대강 검증특위 시한인데 한나라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4대강 사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연말까지 예산안 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광·C&그룹 사정에 정치권 촉각

손학규 "야당 탄압 수단땐 용납 못해"

한나라 "예산안 처리에 악영향 우려"

검찰의 태광그룹과 C&그룹 수사가 정치권을 겨냥하면서 여야는 극도의 경계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5일 검찰의 태광그룹과 C&그룹 수사와 관련, "만의 하나 항간의 우려대로 기업 사정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야당탄압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대기업 부정비리는 철저히 규명되고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공정사회가 사정사회로 된 것 같다"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은 수사하다가 전부 해외로 도피시키고, 식어버린 1~2년 전 부도난 기업은 수사하면서 구여권을 겨냥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도 검찰의 대대적인 기업비리 수사에 대해 '거리두기'에 나섰다.

한화, 태광, C&그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 사정'으로 비화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이 다뤄져야 하는데 정치권 사정 등이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연차 사건 때 저도 한 일간지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됐는데 (검찰로부터)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었다"며 검찰 또는 변호인에 의한 엉터리 피의사실 공표, 정치권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의 자제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검찰의 C&그룹 수사와 관련, "검찰이 과거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시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이라면 왜 그 당시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인지 그 경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렇지 않다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가혹한 편파수사를 한다는 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정관계 로비의혹과 맞닿아있는 만큼 결국 사정 한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 로비가 구 여권에만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사정정국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유통법 처리 무산… SSM 규제 난항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내 순차 처리에 합의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안 처리가 정부와 여당의 조율 미비로 난관에 봉착했다.

민주당이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반응을 이유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때문에 이날 예정됐던 유통산업발전법안(이하 유통법) 처리는 무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유통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해 오늘 의사일정에 올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초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유통법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은 영원히 안 된다'고 말해 민주당으로선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특위 간담회에 참석, 상생법에 대해 FTA 체결에 유럽연합(EU)과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부정적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유통·상생법 분리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조영택·이용섭·김재균 국감 우수의원에

조영택 의원

이용섭 의원

김재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201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광주·전남지역 조영택·이용섭·김재균 의원이 선정됐다. 25일 경실련이 발표한 우수의원은 법사위의 박영선(민주), 정무위의 조영택(민주), 기재위의 이한구·김성식(이상 한나라) 이용섭(민주), 외통위의 송민순(민주), 국방위의 신학용(민주), 행안위의 장세환(민주), 교과위의 안민석(민주), 문광위의 최문순(민주), 농식품위의 김우남(민주), 지경위 김재균(민주), 보건복지위의 최영희(민주), 환노위의 이미경·이찬열·홍영표(이상 민주), 국토위의 강기갑(민노) 김진애(민주) 의원 등이다. 민주당이 15명, 한나라당 2명, 민노당이 1명 각각 선정됐다.

이 중 이용섭·박영선·김성식·최영희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3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뽑혔으며, 김재균·송민순·안민석·최문순 의원은 두 번째로 국감 우수의원이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돌려 드립니다▶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 741번지
◆등록번호 616-81-68236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쳐보세요!

뜨아아~ 목포출발, 녹동(고흥)출발
〈여행자보험 무료가입서비스〉
제주도 여행 2박3일 89,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 등반 + 1일관광도 가능합니다.(₩99,000원)
잠수함, 유람선,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해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9시 또는 14:30)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6:50)출발(단, 일요일은 16:30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
★포함내역 :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조식2회,중식2회, 석식2회,차량료,입장료,주차

고흥(녹동)출발 "녹동투어" 89,000원
★ 일정
· 1일째 : 녹동 남해고속터미널(9:10)출발-호텔1박
· 2일째 : 제주관광-호텔1박
· 3일째 : 제주관광-제주항(17:10)출발
★ 출발일 : 매일 출발 (일요일 별도 문의)
★포함내역 : 왕복선박,숙박2박(4인1실),조식2회,중식2회, 석식2회,차량료,입장료,주차료

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 한라산 등반 15,000원

광주 출발 "2박3일" 항공+항공투어
169,000원(주중+주중)
179,000원(주중+주말)
※ 유류 할증료 별도,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제주 올레길 스페셜 투어 1일 15,000원
[1박 2일 목카투어] 79,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3박 4일 목카투어] 119,000원 (한라산등반 + 2일 제주관광)
[2박 3일 목카크루즈 + 항공투어] 129,000(주중) / 149,000(주말)

"목카렌트카투어" 107,000원 (4인 기준)
★일정 – · 1일째 : 목포국제여객터미널(09:00)출발 – 제주항 도착 – 호텔 1박
· 2일째 : 자유관광 – 호텔 1박
· 3일째 : 자유관광 – 제주항(17:30) 출발
♠ 성수기 기간 별도 문의 ♠

● 농 협 ● 정정아 1079-12-183903
배편, 호텔, 펜션, 렌트카 예약
문의: ☎064-744-1109 (주)제주무궁화관광 www.jejumt.net | 협찬 남해고속 씨월드고속훼리

2009~2010년 S대를 12명 합격시킨
일곡 국민학원, 봉선 국민영재학원이 야심차게 펼치는
중3 대상 고1예비 특별반 4개월과정-강사진 8명이 수업 (고등학교 입학 후 최우등생으로)
※개강 11월 3일 각 학원 1개반 모집 (영·수Test 후수강결정)
마감 유의 ➜ 가까운학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강사진	언어		수학		영어	과학	국사
	최복수	강동구	주석진	박현철	신경찬	배철훈	문승훈
	서강대 대학원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동국대 대학원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현, 국민영재학원 논술팀장	전, 문성고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고난도 수 II N제	전, 일등학원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고난도 10-가,나·수 I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과학고 TEPS 다년간 지도 수능영어 및 TEPS	전, 대광여고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공통과학 및 화학 I · II	전, 양영학원 서울대반 현, 일등학원 최고의 국사 수업
	정성환	박영미	양덕열	이강영	조도현	최상위권을 위한 변화의 시작! 원하는 목표를 한단계 더 높이자!!	
	연세대 대학원 현, 대성학원 서울대반 현, 청솔학원 서울대반	국민학원 국민영재학원 국어 및 문학담당	연세대 경제학과(서울) 전, 서울두레박학원 현, 국민영재학원	전, 서울청솔학원 전, 일산페르마학원 현, 국민영재학원	전남대 영문학 박사 전, 대성학원 서울대반 수능영어 및 TEPS		

시간표	요일 /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6:00~7:30	수학	수학	언어 / 논술	수학	수학	4:30~6:00 언어 / 논술
	7:30~9:00	영어	영어	과학 / 국사	영어	영어	6:00~7:30 과학 / 국사

수업시수	과목 / 시수	주별 수업 시수	월별 수업 시수	비고
	영어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수능영어 + TEPS
	수학	4 time (8시간)	16 time (32시간)	10-가,나 + 수 I +수 II
	언어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고등논술 + 수능문학 + 비문학
	과학 / 국사	2 time (4시간)	8 time (16시간)	공통과학 / 국사

일곡동 국민학원 574-0101 일곡 롯데슈퍼옆
가까운 지역에서 상담하세요.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672-0483 봉선 이마트 옆